

##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실태와 돌봄노동자 특성 비교

- OECD 27개국 중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장기요양보호 서비스(Long-term care service, 이하 LTC) 수급자 비중(2008년 기준)은 2.8%로 폴란드(0.9%), 스페인(1.4%) 등과 함께 수급률이 낮은 국가군에 속함.
  - 노인인구에 대한 LTC 수급률이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24.1%), 네덜란드(19.8%), 스위스(18.9%), 노르웨이(17.9%)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럽 복지국가들은 노인인구의 15% 이상이 LTC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 진전이 빨랐던 일본의 경우도 12.8%로 비교적 높은 수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 벨기에,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설보호보다 재가보호서비스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수급률



자료: OECD, Health data 2010; OECD(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 재정원천별 LTC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지출(정부재정+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76.9%로 스위스(38.8%), 독일(67.2%), 스페인(71.9%) 등의 국가에 비해 높고 오스트리아(81.8%), 캐나다(82.0%)와 유사한 수준임.

<표 1> 재정별 장기요양보호 지출 수준(2007년)

(단위 : %)

	정부재정 (사회보장 재정 제외)	사회보장 재정	개인보험	가구지출	기타	비영리기관 건강보험 이외 법인	
						비영리기관	건강보험 이외 법인
스위스	11.7	27.1	0.4	58.4	2.4	2.4	0.0
포르투갈	2.0	51.4	1.1	45.4	0.0	0.0	0.0
독일	12.5	54.7	1.7	30.4	0.7	0.6	0.1
스페인	61.7	10.2	0.0	28.1	0.0	0.0	0.0
슬로베니아	18.3	57.1	0.5	24.0	0.0	0.0	0.0
한국	46.2	30.7	0.0	17.8	5.3	5.3	0.0
오스트리아	81.1	0.7	0.0	17.1	1.0	1.0	0.0
캐나다	81.6	0.4	0.4	16.8	0.8	0.0	0.8
핀란드	77.2	7.6	0.0	14.2	1.0	1.0	0.0
에스토니아	48.2	39.3	0.1	12.4	0.0	0.0	0.0
노르웨이	89.3	0.0	0.0	10.7	0.0	0.0	0.0
덴마크	89.6	0.0	0.0	10.4	0.0	0.0	0.0
호주	88.9	0.0	0.3	8.5	2.3	0.0	2.3
일본	44.2	44.8	4.0	7.1	0.0	0.0	0.0
뉴질랜드	92.0	0.0	1.3	4.4	2.3	2.3	0.0
헝가리	60.1	30.2	0.9	2.4	6.4	6.4	0.0
스웨덴	99.2	0.0	0.0	0.8	0.0	0.0	0.0
프랑스	44.8	54.4	0.4	0.4	0.0	0.0	0.0
폴란드	43.1	49.2	0.0	0.3	7.4	7.4	0.0
벨기에	31.4	58.7	9.8	0.2	0.0	0.0	0.0
아이슬란드	39.4	60.6	0.0	0.0	0.0	0.0	0.0
체코	30.5	69.5	0.0	0.0	0.0	0.0	0.0
네덜란드	9.5	90.4	0.0	0.0	0.1	0.0	0.1

자료 : OECD, Health data 2010; OECD(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 낮은 LTC 공공지출은 민간영역(개인보험, 가구부담, 비영리기관 등)의 높은 지출 의존도로 이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LTC 총지출에서 가구부담과 비영리기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7.8%, 5.3%로 나타남.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 및 시간제 근로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과 함께, 가구구성원 누군가에게 부여된 돌봄책임, 단시간·무임금의 비공식 돌봄노동이 고용가능성 악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표 2>에서는 각국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돌봄자와 비돌봄자의 고용상태를 비교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자의 취업자 비중이 비돌봄자에 비해 낮고 가정주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으로 나타남.
- [그림 2]에서는 가구 내 돌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시간제 근로 취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아일랜드, 스위스, 폴란드 제외). 돌봄자와 비돌봄자의 시간제 근로 상대비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가 각각 1.8, 1.7로 돌봄자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비돌봄자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음.

<표 2> 돌봄자와 비돌봄자의 고용상태 비교(50~65세)

(단위: %)

	은퇴		취업		실업		가정주부	
	돌봄자	비돌봄자	돌봄자	비돌봄자	돌봄자	비돌봄자	돌봄자	비돌봄자
호주	16.8	16.2	53.1	66.2	1.6	1.8	21.7	6.9
오스트리아	48.9	44.0	31.8	38.9	3.3	4.0	11.6	9.8
벨기에	22.3	25.6	39.0	42.7	10.5	6.0	16.5	13.0
체코	34.7	43.4	44.7	48.1	11.2	5.6	0.3	0.0
덴마크	19.1	22.2	59.0	60.6	7.0	5.9	1.3	1.7
프랑스	24.0	25.5	51.6	52.7	4.3	6.1	13.8	9.3
독일	23.5	20.5	48.2	53.8	9.7	11.2	11.9	8.9
그리스	18.7	23.3	31.4	47.2	2.4	2.8	46.0	25.1
아일랜드	11.1	17.0	55.6	51.9	1.7	4.0	24.7	17.8
이탈리아	36.2	35.5	33.5	35.8	3.2	4.0	24.5	22.3
한국	7.0	10.6	45.0	48.9	3.8	3.0	36.9	33.2
네덜란드	6.5	11.0	52.4	5.1	2.9	3.0	27.0	17.6
폴란드	37.6	36.2	33.6	60.3	3.4	7.9	9.8	5.3
스페인	10.0	13.8	33.0	45.1	5.9	7.5	43.9	25.7
스웨덴	12.9	16.3	75.4	73.9	1.4	3.5	0.8	1.1
스위스	7.3	10.2	67.0	69.5	3.5	2.8	15.7	10.0
영국	10.6	7.3	77.9	80.9	1.4	0.9	5.3	5.0
미국	17.7	15.5	58.5	62.0	2.3	1.8	10.7	9.1
OECD (17)	20.3	21.9	49.5	52.4	4.4	4.5	17.9	12.3

주: 1) 돌봄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각국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주당 최소 1시간 이상 가족이나 이외의 대상에게 돌봄책임이 있는 자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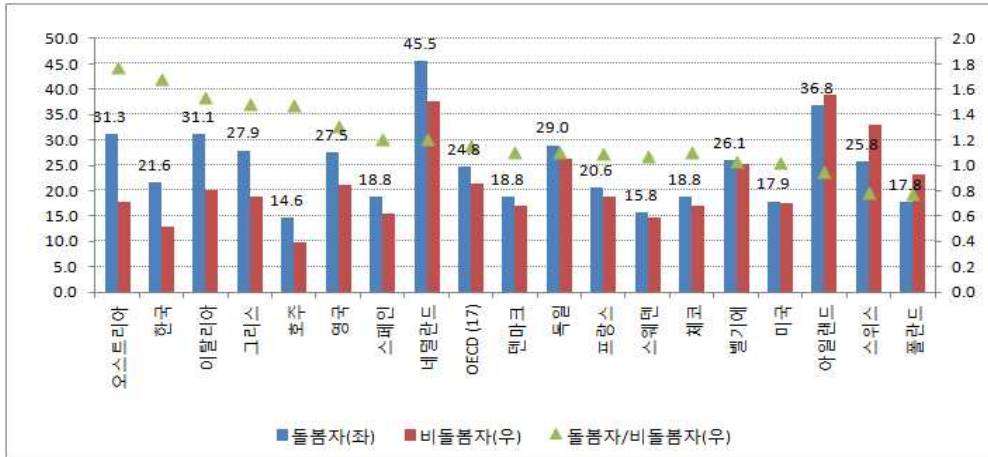
2) 분석자료의 표본은 50~65세로 한정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45~65세로 다소 표본연령의 차이가 있음.

3) 분석자료: HILDA(호주), BHPS(영국), SHARE(유럽), KLoSA(한국), HRS(미국).

4) 분석연도: 호주(2005~07), 영국(1991~2007), 유럽(2005), 한국(2005), 미국(1996~2006).

자료: OECD(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그림 2] 돌봄자와 비돌봄자의 시간제 근로 비중



주·자료: <표 2>와 동일.

- 가속화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요양보호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돌봄자 역할과 그에 따른 무임금(저임금)·시간제 노동으로 대표되는 비공식 돌봄노동은 소득활동 제약과 고용가능성 저하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임. **KLI**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